

#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 치우개선 변화 분석

홍 창 국\*

1. 서 론
2. 이론적 자원
3. 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4.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5.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6.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7. 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
8. 결 론

## 1. 서 론

한국군이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강군이 되는 과정의 이면에는 군인가족이 함께하였음을 상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60여 년 동안 한국군의 전투력 창출 형성 과정에서 군인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군의 일부를 형성하여 왔다.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E-mail: ckdrnr22@naver.com

한국군 창군이후 군인 가족들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환경 변화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이르러 복지정책 등의 분야에서 단일 주제에 한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희소성에 대한 연구 주제를 논의한 학자는 홍두승<sup>1)</sup> 등 일부에 불과하고,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처우개선의 변화에 대한 접근과 성과물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군의 발전과 함께한 군인가족들의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과 복지 여건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고 논의할 것이다. 군인가족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병시적(並時的)이고 통시적(通時的)인 관찰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한국군의 발전 구분에 따라 서술적·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무형전투력인 사기와 근기, 결속력의 한 부분들이 그들의 가족에게서 도출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전하는 한국의 사회에서 확대되는 군의 역할과 기능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본론에서는 한국군의 발전과정 구분을 토대로 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국방

1)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6, 제12장 “군인가족의 고립과 적응”; “한국의 군인가족: 고립과 적응을 중심으로”, 『전략논총』 제2집, 199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등에서 군인가족들의 실태를 광범위하고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사회와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문재봉·최광현,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전략: 미국군 선행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428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최광현, “군인의 잦은 부대이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군의 선행연구 사례와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05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광용수, “지역 환경에 부응한 군인가족공동체 복지증진방안”, 『주간국방논단』 제1377호, 한국국방연구원, 2011. 등은 주로 미군의 사례를 위주로 시사점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주.

태세 발전기(1991~현재) 순으로 논의하겠다.<sup>2)</sup>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한국군의 전투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인가족들의 무형적 역할을 감안하면 한국군의 발전과정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에서는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과 복지 여건에 대한 변화들의 특징적인 성과물을 도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자원

한국군의 군인가족들은 한국의 안보적 상황과 군 특수성에 기인하여 주로 산악지역 및 오지 등에 군부대 주둔지가 형성됨에 따라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일반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와는 이격된 시·공간적 관계성이 분절된 상태에서 군인가족들만의 고유문화가 형성되었다.

일반사회와는 군 특수성의 영향 내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모체사회와는 분리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인가족들은 남편의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 주거 문제,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욕구 충족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한국 사회의 교통과 통신 등의 인프라가 발달되면서 군인가족에 대한 제도와 정책 변화 등으로 군인가족들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모체 사회와는 완전히 분리되었던 군인가족들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군인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돌이켜보면 군인가족은 군인의 처와 자녀만을 군인가족으로 생각하였으며, 군인가족들도 흔히

2)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 1998; 육군본부, 『대한민국 육군 60년 발전사』, 2009. 등 군 관련서적은 대부분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시대 구분을 따르고 있다. 저자주.

이러한 범주 안에서 통용되어 사용하였다. 하지만 1997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용어가 정립되어 사용하고 있다.

즉, 군인가족은 첫째, 배우자,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셋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세계를 무대로 운용되고 있는 미군의 군인가족들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양질의 민간인을 선별하여 획득하고 군사전문가로 장기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전투에서 발휘되는 무형의 전투력이 가족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미군들도 과거에는 단순한 형태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군인가족을 지원하였으나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군인가족과 관련된 정신적·신체적인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인가족들의 취업과 경력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미군들의 노력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 개발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모체사회와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3. 전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1945~1960)

전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에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처우의 개념은 형성되지 못했으나, 6·25전쟁의 영향으로 비록 기본육구를 충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군인가족들의 식생활은 일반 피난민들보다는 나은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군복지기본법(법률 제11389호, 2012. 9. 22 시행)”, 2012. 8. 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39&efYd=20120922#0000>> 제2조(정의) 참고.

수준이 지원되었다.

군인가족들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육군본부 군사감실에서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6월 25일에 발간한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sup>4)</sup>이다.

한국군 창군 이전인 1949년 7월 군 원호 및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육본 참모부에 후생감실(厚生監室)을 창설하여 군인 및 군무원 부양가족의 후생 및 복지사업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의 수립과는 별도로 당시 반공제일주의에 의한 시대적 상황은 군인들에게 집중되었고 부양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조직 측면이나 제도적인 준비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후생감실 기구는 행정·원호·체육·후생 등 4개과로 편성되어 주로 공비토벌부대에 대한 위문 및 위문품 수집 업무, 군 체육행사 및 향상에 관한 업무, 후생사업과 매점 및 군인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sup>5)</sup> 수행하여 군인가족에 대한 관심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창군기의 시대적인 혼란과 대립으로 기혼의 군인들은 숙소도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가족들은 대부분 별거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였다. 일부는 창군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국 등 외국에서 급하게 귀국하였으므로 가족들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입국하거나 불안한 국내 정세 때문에 미리 입국하는 등 군인들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창군 초기의 가족들은 주로 정부물자와 외국 원조물자를 배급받아 생계를 이어갔다.<sup>6)</sup> 당시 군인가족들을 위한 정부물자와 외국 원조물자가 무엇인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문헌기록이 없어 정확한 통계는

4) 이 문서는 1962년 3월 25일 ‘육규 680-1(‘60. 1. 1)’에 의거 일반문건으로 등급 저하되었다. 총 500건을 생산 배부하였으나 파기하고 적은 양이 남아 있다.

5) 1949년 7월 5일 ‘육본 일반명령 제26호’에 의거하여 서울 한강로에서 창설되었다.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79쪽.;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 1970. 351~352쪽.

6) 육군본부, 『육군경리약사 제1권(1945-1962)』, 17쪽.

알 수 없다. 다만, 미군에서 지원한 군원물자의 일부가 군 계통으로 보급된 것을 사용하거나 부대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사용하던 장비 혹은 물자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의 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국가 체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6·25전쟁 초기에는 극도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은 계획적인 가족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며, 군인가족들도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전쟁의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이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 혹은 딸로서의 역할을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극복하였다. 전쟁의 정세가 차차 정비되면서 전장에서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위하여 가족들에 대한 구호활동이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6·25전쟁으로 남하하는 가족들의 원호 등에 주력하기 위하여 열차알선(列車斡旋), 구호수용(救護收容) 등에 집중하였으며 식량지원은 1950년 8월 10일부터 전재(戰災)군인 가족들을 위한 구호미(救護米)가 무상으로 배급되면서 시작되었다.<sup>7)</sup>

1951년부터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군 공무원 부양가족미(扶養家族米)를 받아 생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식량관리실(食糧管理室)을 편성하였고 가족들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한 영외주보(營外酒保) 시설이 전국 각 지구에 25개소가<sup>8)</sup> 운영되었다.

이러한 시설들과 물자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궁핍하였음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양곡지급소와 영외주보 등이 운영되어, 군인가족들을 위한 정부와 유관 부대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 궁핍한 생활은 제도적인 혜택으로 복지 수혜를 받게 되었다.

전쟁이 종료되자 동족상잔의 결과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참혹하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약 450,000여 명의 국군 부상자와 137,000여

7) 위의 책, 13쪽.

8) 陸軍本部 軍史監室,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64쪽.

명의 전사자 유족들을 돌보기 위해 정부는 1962년에 유족들에게 1인당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1389호)』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조치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남편과 사별한 군인가족들은 경찰가족 등과 함께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를 국가유공단체로 조직을 설립하여 제도권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sup>9)</sup>

전쟁직후의 주거 환경은 시민사회나 군에서나 매우 열악하였다. 군에서는 군부대 막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나 재료가 없었으므로 인력에 의존하여 현지에서 획득 가능한 재료를 활용하여 군부대 막사를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되면서부터 가족들이 기거할 관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군인 주거시설은 군부대 막사를 짓던 기술과 장비, 물자를 활용하여 군 막사 인근의 가용한 공터에 새로 짓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빈 건물을 개조하여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사용하였다.

이마저 지원이 제한되는 주거 소요는 주둔지 인근의 여유 있는 민간 주택의 월세 혹은 무료로 지원하던 단칸방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전후의 시기로 한국사회의 모든 것이 열악하였고 생활은 아주 궁핍하였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복지 여건 향상을 위한 조치로는 군 장병 및 군속들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육군 PX(Post Exchange)는 1952년 12월 1일 정식 개점하였다. 이러한 시설과 물자들은 군인가족들에게도 생활의 혜택을 받게 하였다. 이 시설은 1960년 초에는 서울 등 9개 도시에 파견대를 설치하여 군인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당시에는

9) 창립 초기에는 전국에 11개 지회를 구성하였으나 2012년 1월 현재 16개 지부 및 230개 지회가 활동하고 있다. 현역군인의 미망인은 26,583명이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조직현황”, 2012. 10. 9. <[http://www.kwwa.org/DR1001/FN1001DS\\_01.asp](http://www.kwwa.org/DR1001/FN1001DS_01.asp)>; 다른 서적에는 1963년 8월 12일에 창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3년 조직현황은 본회 1, 지부 16, 지회 224개소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연감(2003년)』 제24호, 2004, p.332.

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도매 시세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며 민간 상인의 개입을 금지하는<sup>10)</sup> 등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 군인가족들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시민들은 피폐된 사회경제로 인하여 최저의 생활여건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군인가족들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노력은 일반 시민 대부분과 비교하면 매우 좋은 편이었다. 또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식료품 등에 대한 도움으로 비록 오지에서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었지만 식생활에 있어서는 별반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였다.

#### 4.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국방체제 정립기에서는 자주국방과 경제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종속되어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은 주로 군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여 수혜를 받는 것에 치중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거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군 독자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1960년 8월 20일부터 가족들을 위한 지원 업무는 원호관리국(援護管理局)이 창설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후생감실과 홀병감실, 정병감실에서는 단순 업무만 지원하였으나 원호관리국이 창설되면서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과 준비가 마련되어 창군이후 처음으로 군인가족들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1970년 12월 1일에는 원호관리국이 원호관리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인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직들로 인하여 군인가족들을 위한 생계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임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10)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81쪽.; 陸軍本部 軍史監室,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51~152쪽.



된 것이다.

1960년대에는 군인연금과 군인보수에 대한 체계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군인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군인과 통합되어 운용하다가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1963년 1월 28일 별률 제1260호로 독립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 보상 차원에서 전역 후의 생활보장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보장받게 되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생계비는 최저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 검토되어 1964년에는 ‘가족수당’ 지급이 실현되었고, 1965년 1월 27일에는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045호』의 제정에 따라 실현되었다. 이로써 모법인 『군인사법』에 적용되는 군인보수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안정적인 군의 임무수행과 생계유지도모하였고 군 직업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일반 시민 및 공무원의 낮은 소득과 복지 환경을 비교할 때 군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sup>11)</sup>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군인을 직업으로 선호하게 되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육군 최초의 군인주택과 아파트는 1964년 육본 원호사업으로<sup>12)</sup> 건립하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도에 실시한 군인주택 공사계획 및 실적을 보면 국가지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陸軍本部 軍史監室,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人事篇』, 1956, 179쪽.

12) 주택 건립 동기 및 경위는 전·후방 지구에서 근무하는 무주택 장병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3년 5월 육본에 군인주택위원회를 설치하여 건립 방안을 연구하던 중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특별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본격적인 군인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394쪽.

〈표 1〉 1963년 군인주택 공사계획 및 실적

구 분	자금 및 출처	건물내역		기 간
		동/건평	세대수	
전방지구 군인주택	2,000만 원 (PX적립금)	150/9.38	150	'63.9.1~ '64.11.30
육대 군인주택	1,000만 원 (최고회의)	32/18.7	64	'63.10.1~ '63.12.15
서울지구 군인아파트	17,500만 원 (원호처)	9/674.7	432	'63.9.24~ '64.7.30

\* 출처: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394쪽.

군인주택이 건립되면서 1963년 9월에는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호응하여 상공부로부터 1964년도에 사용할 연탄 22,964톤을 배당받아 전방지구 및 서울지구 거주 군인 가족들에게 구공탄을 염가(전방 5.90전, 서울 6.30전)로 공급<sup>13)</sup>하였다. 당시 일부 도심지역에는 난방용으로 구공탄을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은 화목을 사용하였으며 오지 및 변두리인 관계로 화목 아궁이 등은 1980년대 후반까지 사용되었다.

군인주택의 보유현황을 개략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문서는 1966년 12월 28일 국방부 기획국에서 발간한 『국방백서(1967)』이다. 이 문서의 육군편 인사 분야의 사기 및 복지 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sup>14)</sup>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의주거 장병의 주택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던 육군에서는 '63년도에 군인 주택 32동을 건립하여 64세대를 입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65년도에는 국고보조 25,000만 원으로 서울에 군인아파트를 건립하여 재경부대 장교 432세대를 수용하고 있으며 '66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30세대분을 건립하게 되어 전체 소요 45,114세대의

13) 위의 책, 397쪽.

14)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주)삼성인쇄, 1967, 158쪽.

약 2%를 해결하였다. '67년도에는 100동을 건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계속 주택난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국군의 군인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보유현황을 표기한 최초의 문서는 육군본부에서 1969년 발행한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로서 1969년 5월 당시의 군인주택 보유현황은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군인주택 보유현황

구 분 <sup>15)</sup>	보유(수) (동/세대)	세대 (건평)	건립연도	자금 (만원)	자금출처	
계	940/1,983			34,502		
원호주택	PX	157/161	9.4	64.8	2,230	PX 이익금
	기부	33/64	9.2	63.12	1,000	대통령 하사금
	대부	9/432	13.6	64.12	25,272	원호처 대부금
국고주택	97/380	8~10	66.10	6,000	국고금	
일반주택	644/910	14	창군~			

\* 출처: 육군본부, 『팜플렛 600-15-1 육군인사역사(제1집)』, 1969, 410쪽에서 재편집.

당시 군인주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호주택과 국고주택,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주택은 국가지도자의 하사금과 정부기관인 원호처의 지원과 국고에서 할당된 예산으로 건립한 주택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의 보루로서의 직분과 역할이 수행되도록 지원하였다.

15) 구분란의 용어 설명은 ① PX 주택은 원호자금(PX이익금)으로 건립된 주택, ② 기부주택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건립된 주택, ③ 대부주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건립한 주택(원호처), ④ 국고주택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건립한 주택(원호처), ⑤ 일반주택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용관사로 사용되어 온 건물과 부대자체에서 임의 건립한 주택이다. 육군본부, 앞의 책, 410쪽.

1960년대는 군에서도 군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군 자녀 최초의 유치원 교육은 1961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5군단 최전방 사단에서 군 자녀를 위한 유치원이 개원되었다. 유치원생은 남녀 53명으로 남아가 24명, 여아가 29명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보모 2명을 운용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1961년 12월 21일 제1회 졸업식<sup>16)</sup>을 거행함으로써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여건을 마련되었다.

당시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드물었지만 적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전방사단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유치원 운영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당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대책이 처음 수립된 것은 1964년 원호사업의 비예산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자녀들에 대한 군의 당면 문제는 전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원거리를 걸어다니는 학교까지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63년 12월 31일 육본에서 파악한 최초의 군 자녀 교통편의 제공 현황자료는 전방지역 취학 아동 수를 3,843명, 차량 통학 아동수를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통학 편의 제공은 부대별 계획에 따라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취학 아동에게 군용차량(버스)을 제공하도록 지시<sup>17)</sup>되었다. 1965년에는 전방지역 자녀에 대한 통학 차량 제공과 더불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는 교육 장비와 기술지원 그리고 우수교원이 배치<sup>18)</sup>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낙후된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었으나 군 특성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6) 당시의 지휘관은 파월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장군이였다. 제5군단, 『승진30년사(1953. 10. 1~1983. 10. 1)』, 1983, 194쪽.

17) 제1야전군에서 최초로 군인자녀를 위한 교육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육군본부, 앞의 책, 395쪽.

18) 위의 책, 401쪽.

복지여건 측면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초 복지단 매점의 피복부에서 처음으로 남자를 위한 양복과 가족을 위한 양장과 자녀들을 위한 아동복을 판매하게 되었고, 피복 세탁 및 수선과 시계와 라디오도 취급하게 되었다.<sup>19)</sup>

1961년도에는 식품류와 약품류, 의복류, 일용품 등 387개 품목, 62년도에는 연료와 가구류, 완구류, 주식류 등이 포함되어 984개 품목이 판매되었다. 1965년에는 중앙조달과 현지조달로 구분되어 236개 업체에서 1,522품종에 689개 품목이 거래되는<sup>20)</sup> 등 군의 복지 환경이 개선되면서 반사적인 혜택을 군인가족들이 받게 되었다. 당시의 이익금은 해마다 증가하여<sup>21)</sup> 재투자함으로써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의 일반가족들보다는 여유로운 생활환경이 유지되었다.

## 5.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에는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은 주로 전후 원호사업과 자녀교육 및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제도권내에서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1965년에 시작한 월남전 파병은 1973년 3월에 모든 전투원들이 귀국하면서 종료되었다. 이 파병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6·25전쟁에 대한 은혜를 갚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도약의 기반과 국방력을 강화

19) 1961년 5월 31일에는 전·후방 9개 지구(서울,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춘천, 일동, 전국)에 파견대를 운용하였다. 육군본부, 앞의 책, 381쪽.

20) 위의 책, 414~416쪽.

21) 1961년 당시 영외 PX는 없었지만 1962년 2개소, 1965년 46개소, 1967년 50개소로 늘어났으며, 총 판매액은 1961년 8,602만 원, 1965년 82,881만 원, 1987년 130,243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위의 책, 414쪽.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약 5,099명의 전사·순직·사망자, 10,962명의 전상·부상자, 4명의 실종자<sup>22)</sup>, 그리고 10만여 명의 고엽제 환자들이<sup>23)</sup> 돌아왔다. 9년의 참전기간 중 발생한 원호대상자 중 미망인 등록 숫자는 108,536명<sup>24)</sup>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의 수는 상이군인과 기존 미망인들의 사망과 가입 등으로 인하여 증감을 유지하다가 2012년 7월 31일 현재 8,800명<sup>25)</sup>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원호지원은 주택지원, 영농축우지원, 장학금, 합동결혼식, 자립금 대출 등이었으나 아주 미미하여 제도적으로 충족하지 못하였다.<sup>26)</sup> 이후 1966년 5월 9일 ‘파월군 재해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였고, 1974년에는 ‘파월전상자 자립촌’을 건설하여 지원하는 등 법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1970년대까지 주거시설은 내·외부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주택의 난방은 화목 아궁이가 대부분이었고 부엌, 화장실, 씻는 것 등 모든 것이 불편하였다. 화목아궁이가 연탄아궁이 등으로 대체된 것은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후인 1973년부터이다. 군에서도 가족들이 기거하는 주거시설을 먼저 개량하였다.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서울: (주) 정문사, 2007), 40쪽.

23) 위의 책, 146쪽.

24) 월남전 원호대상자는 상이군인 393,816명, 미망인 108,536명, 고아 434,144명, 피난민 104,630명, 기타 104,630명으로 총 1,731,126명이다.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 1985, pp.530~536; 주월한국군사령부, 『귀국보고』, 1973. 28쪽.

2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실무자와 2012. 10. 12일 전화통화 결과이다. 저자주.

26)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國防史4』(서울: 公友開發, 2002), 770쪽.

〈표 3〉 최전방 1개 군단 주거 보유 현황(단위: 세대수)

구분	소요	보유	건립	계(%)	과부족(%)
계	4,560	577	256	733(16.0)	-3,857(84.0)
A	829	150	47	197(23.7)	-632((76.2)
B	1,150	126	55	181(2.4)	-969(84.2)
C	1,072	123	44	167(15.5)	-905(71.2)
D	659	80	42	122(18.5)	-537(81.4)
E	309	31	13	44(14.2)	-265(85.7)
F	471	67	55	122((25.9)	-349(74.0)

\* 출처: 제5군단, 『승진 30년사(1953. 10. 1~1983. 10. 1)』, 1983, 342쪽에서 재편집.

1976년도의 최전방 1개 군단과 예하 사단의 관사 소요 대 보유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소요 4,560세대에 보유 577세대, 추가 건립 256세대로 총 733세대에 16%의 저조한 보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소요에 비하여 3,857세대가 부족하여 과부족율이 84%로 주거 욕구에 대한 충족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당시까지도 부족한 주택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용하던 관공서나 일반 건물이 사용되었으며,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건물도 있었다. 이외에도 6·25전쟁 복구기간에 군인들이 스스로 건축한 주택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것도 있었다.

1972년에는 군 자녀를 위한 최초의 『군인자녀 교육보호법』이<sup>27)</sup> 제정되어 군인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군인의 사기를 양양을 위하여 제도적인 조치가

27) 이 법은 1989년 12월 폐지되고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2429호(1972. 12. 30. 제정, 1973. 3. 1. 시행),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6340호", 1972, 5664~26쪽.

강구되었다.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 연두 순시에서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 강구 지시’를 하게 되면서 ‘면세품 제도’가 도입되었다.<sup>28)</sup> 1970년대 한국사회는 가전제품이 희귀하여 인기가 높았다. TV, 냉장고, VTR, 에어컨 등 7종에 대하여 1인 1매의 면세품 카드가 발급되었고, 수량과 구매주기가 통제되었으나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가치 있는 혜택이었다. 특히 에어컨과 냉장고 등은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일부는 본인의 혜택을 양보하여 처가나 시가에 선물함으로써 부모 혹은 고향사람들로부터 군인가족으로서 자긍심과 부러움을 느끼는 등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등 제도적인 수혜를 받았다.

## 6.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

자주국방 강화기에서는 제도 및 주거면에서 기존의 단순 지원차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변화 양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에서도 지역위주에서 공간지원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한국은 사회와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생각하던 시기였다. 한국군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호응하여 1981년에는 원호관리단이 복지근무지원단으로 개칭되었으며,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본격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군내부에서도 사회 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생활수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 상향 정책이 요구되었다. 특히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작전과

28) 현재는 『주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하여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류세와 교육세의 면제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군복지단, 『군 복지시설 안내』, 2012, 94쪽.



근무를 병행하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제도 및 주거 측면에서는 1984년 2월 1일 군인공제회<sup>29)</sup>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으며, 이 조직은 회원 각자의 공제제도로써 높은 이자율과 장기간 수익으로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목돈마련적금이나 민간아파트를 건립하여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등 가족들과 연관 있는 사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으로 군인가족들은 대부분 휴전선, 해안 및 내륙오지 등에서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빈번한 이주와 이중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군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주택보급률 저조, 자녀교육의 어려움, 이사 및 이중생활비 추가지출 과다, 그리고 재산 증식기회 희소 등은 군인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30)</sup> 또한 군인가족들은 한 지역에 영구 거주하기보다는 수시 이동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980년대 후반 일반 공무원들의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비하여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들은 1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보유율도 영관장교 및 준사관, 선임하사관 등 대부분이 월남전 기간 중 파월수당 등으로 주택마련의 기회를 가진 데 기인하고 있다.

29) 군인공제회는 전역 장성의 군사연구 활동, 연금 수급 미취업자에 대한 학비보조사업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제기금제도를 통한 목돈마련, 무주택자 아파트 저가 분양, 높은 이자의 목돈마련적금, 저리의 목돈 대출, 대학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학원 학비지원, 재해 위로금, 복지시설 운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정관”, 2011. 10. 17. <<http://www.mmaa.or.kr/contents.action?menuid=75>>.

30) 국방부, 『국방백서(1988)』(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88), 247쪽.

〈표 4〉 1988년 주택보급률(단위: 세대수)

계급	계	위관, 중사	상사	준위	소령	중령	대령
대상	86,972	47,333	17,695	4,635	10,019	5,490	1,809
보유	9,673	2,317	3,312	1,575	482	1,056	931
%	11.1	13.1	18.7	34.0	4.8	19.2	51.5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1988)』(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소, 1988), 248쪽.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군 주거지역의 개념이 도심지나 도심지 인근에 대단위로 건립하는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확장과 교통 기반의 발달로 국민들과 가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졌다.

1988년부터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에 약 2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가족들을 위한 교육시설, 종합상가, 체육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하였다. 기존의 시민사회와 고립되어 있던 군 주거지역이 상호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하도록 형성되었다. 계룡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부 지방대학의 평생학습관 건립 등으로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가족들도 평생학습 교육, 민간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군사주거단지로서의 지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계룡대 지역 랜드마크로서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국군복지단·계룡대 근무지원단 간의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지 공동 개발 협약식’<sup>31)</sup>을 맺었다. 복합문화레저단지가 조성

31) 총 사업비 약 5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계획에서 계룡시는 행정시설과 스포츠센터·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국방부는 쇼핑몰·숙박시설·병의원 등 군인 복지시설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공유로 화합의 터전인 민·군 통합 복지타운으로 형성하는 사업이다.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제456호, 2011, 61쪽.

되면 군인가족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최고의 복지 및 주거시설로 변신하게 된다.

군인자녀들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군인 및 군인자녀 대학 학자금대부’ 지원이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국고 또는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었으며, ‘무이자 학자금’ 지원은 대부분 전역 시 퇴직금을 수령하여 일시에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육군의 군 자녀에 대한 장학금 운영은 6·25전쟁 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던 춘천 제1고등학교를 1982년 2월 28일 문교부에 이관하고 학교 운영기금 3억 원을 인수하여 1982년 7월 6일부로 ‘육군 장학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까지 26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연인원 1,247명에게 1인당 30~4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83년에는 도시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군 자녀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가 설립되었다. 서울 영등포에 ‘창공학사’를 최초로 설립하여 지원한 이래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추가 건립하여 2012년 10월 현재 전국 대도시에 12개소를 완공하여<sup>32)</sup>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1980년도부터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레저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군에서는 1982년부터 설악산, 용인 등에 콘도미니엄 10실을 매입하여<sup>33)</sup> 군인과 가족들에게 제공하였다. 1983년 12월에는 제주도에 현대식 장병휴양소를 건립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2) 서울 4개소, 대전 2개소, 춘천, 원주, 수원, 대구, 부산, 광주에 각각 1개소로 지역별 수용능력은 60~490여 명으로 편차가 심하다. 총 12개소에 1,062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2,170명이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82쪽.

33) 육군본부, 앞의 책, 446쪽.

## 7. 국방태세 발전기(1991~현재)

국방태세 발전기에서는 그동안 산업화에 대한 보상 등의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은 삶의 향상과 복지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었다.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도 제도, 주거, 자녀교육, 복지여건 등 전 분야에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시행되어 모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군인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함께 제도적인 조치 등으로 군인가족들의 주거와 복지 환경은 급격하게 전환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군 복지시설의 지속적인 건립과 구매·관리 유지,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종사원의 인건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인복지기금법』과 『시행령』을<sup>34)</sup> 제정하고 복지수혜를 사용자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 복지업무와 시설 등이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에는 국군복지단을 창설하고 이어서 2010년 1월 1일 3군 복지단이 통합되어 통합 복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도<sup>35)</sup> 다양해졌다.

34) 마트, 호텔 및 콘도, 복지회관,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병들에게 복지수혜를 제공하고 시설운영 수입금을 장병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1996년 7월 1일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동년 7월 6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군 복지기금관리·운용규정』을 제정하였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p.11.

35) 통합복지단의 임무는 첫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둘째,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셋째, 그밖에 국방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이다. 기능은 ① 군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복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② 군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③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④ 군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 ⑤ 복지시설 운영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⑥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제도 개선, ⑦ 그밖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복지관련 업무의 수행 등이다. 국방부, 『국군복지단령』 제2조, 2008.

지금까지 군인위주로 추진하던 복지사업을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한 지원위주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병행 추구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08년부터는 『군인복지법기본법』에 의하여 군인공제회와 주택공사로부터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일반 민간주택을 공급하는 군인 특별공급 주택 입주 제도가 시행되어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군 배정물량을 공급받도록 하여 많은 인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면서 주거복지가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방부 복지예산으로 운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sup>36)</sup> 시행되면서 2010년부터는 가족들도 의료 보장보험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 보장보험의 신설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입원의료실비의 90%와 병실사용료도 지원하고 있다.

1990년과 2000년대에도 대단위 주거단지 건립은 2개소에서 추가로 건립되었다. 대전지역으로 교육기관이 이전하면서 약 2천여 세대로 구성된 자운대가 만들어졌다. 자운대내에는 종합상가, 복지회관, 교육기관은 물론,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종교시설, 지방자치제 출장소, 의료기관 등 가족들을 위한 복지 및 여가시설이 풍부하게 조성되었다. 2011년에는 지자체와 통합공원을 조성하여 여름밤에는 공연까지 하는 등 일반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전방지역인 강원도 춘천 도심지 인근에 12층 규모의 7개동이 건립되어 다양한 복지 및 여가시설을 근거리에서 접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군의 정책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36)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 항목 중 자신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후생복지 제도이다. 기본항목은 각종 보험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자율항목으로 분기별 배정되는 복지자금을 개인별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군복지단, 앞의 책, p.102.

일반시민은 더욱 밀착되고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었다.

1990년대부터 한국사회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부모들이 가지는 기대가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91년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과 그와 관련된 직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군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p>37)</sup>을 하였다. 군인 중에 혼자 사는 경우가 132명으로 22.5%, 자녀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가 39명으로 6.5%, 군 생활에서 가장 애로점은 자녀교육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녀교육은 주로 아내가 맡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잦은 전출과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자녀들이 경쟁대열에서 낙오하거나, 군 간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군의 사기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992년에는 군인공제회 부설기관으로 재단법인 ‘호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3군의 장학기금이 통합하여 운용되었다. 2001년부터 ‘호국장학금’은 대학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격려금’ 100만 원과 재학생은 장학금 50만 원을 1가구당 1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중·고등학생은 『자녀 학비 보조 수당규정』(대통령령 제10957)에 의거하여 학비에 한하여 지원받게 되어 일부분이라도 간접적인 사기를

37) 설문지의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9개의 질문을 통하여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본 다음,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5개의 질문과 자녀 교육의 기대수준에 관한 13개의 질문, 자녀 교육과 관련된 직무만족에 대한 12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응답자를 연령별, 계급별, 군별, 직책별로 세분화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분해하였으며 실질적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를 대표하기 위한 표본으로 600명의 군간부를 추출하였다. 이 조사는 군 내부의 미공개된 설문으로 결과는 군 간부들의 자녀 지도를 위한 참고 교재를 작성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국방부, 내부문서, 1992.

진작시켜 군 복무에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1999년부터 시행된 ‘군인자녀 대학 특례입학 제도’는 국가유공 및 사회기여 대상 중의 하나로 직업군인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2008년도 기준 신분별 대학 현황은 장교가 58개 대학, 준사관이 75개 대학, 부사관이 81개 대학으로 총 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관추천 5개 대학, 해부대 지휘관 추천 1개 대학과 개인별 지원 대학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면서 매년 4~5개 대학이 증가되었다. 특례입학 대학 중 서울지역이 16개 대학, 기타는 지방대학이다. 연도별 합격 현황은 <표 5>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sup>38)</sup>

<표 5> 연도별 합격자 현황(단위: 개소, 명)

구분	'99	'00	'02	'03	'04	'05	'06	'06	'07	'08
대학	3	13	28	43	49	56	60	62	75	77
인원	32	137	293	477	400	411	413	414	416	419

\* 출처: 육군본부 내부문서, 2010.

가족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자녀 교육문제는 잦은 이동에 따른 전·편입학 문제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군인 자녀들을 정원 외 전·편입학이 허용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입학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정원을 수시로 배정하거나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한 것이다.

38) 장교는 연세대, 숙명여대, 성균관대학, 부사관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장교는 연세대와 숙명여대는 2003년부터 시행하였고 성균관대는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숙명여대는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부사관은 연세대는 1999년, 고려대는 2000년, 이화여대는 2001년부터 실시하였고, 숙명여대는 2002년~2004년까지 실시 후 2005년부터 중단되었다. 성균관대는 2007년에 1회 실시하였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도 각각 1~2회를 시행 후 중단되었다. 육군본부, 내부문서, 2010.

2000년대부터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인끼리 결혼하는 부부군인이 증가하고 있다. 야근 및 출장, 훈련 등으로 가족들의 양육을 지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하여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휴가나 성과금 등 남성과 동일한 자격과 대우 및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도로, 교통, 통신 등이 급속히 발달하여 군인 가족들의 생활에도 많은 혜택과 변화가 있었다. 이 중 도로는 2009년 통계청 자료 현황을 보면 도로 총연장 104,236km가 포장되어 전체 도로의 79%가 포장됨으로써 '70년 대비 약 10배 정도가 증가<sup>39)</sup>되었다. 군부대 지역 중 가장 오지로 꼽히는 강원도 인제·양구지역에도 사회 기반의 혜택으로 서울까지 약 4시간, 속초까지 약 5시간 이상 소요된 이동시간이 2·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개인 차량의 보유수도 증가하여 전국 각지 어느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 1위의 인터넷의 발달로 전방 오지의 군인가족들은 전국 각지의 쇼핑물을 통하여 안방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직구매도 가능해졌다. 전국 각지의 군인가족들은 인터넷사이트를<sup>40)</sup>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자녀들도 발달한 인터넷으로 서울의 유명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진학에 대한 정보도 받아 보고 있다.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투자 상담이나 정보를 받아 활용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 군인 가족 거주지에 영외마트 114개소를<sup>41)</sup> 설치하여 연중무휴 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계룡대와 자운대 등에서는 7개소의 쇼핑 타운이 늘 운용되고 있다.

39) 통계청, 2009년 도로포장률 통계자료 참고.

40) '내 남편은 군인(<http://cafe.daum.net/jung7511/>)' 등 다수의 카페가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자주.

41) 국군복지단, 앞의 책, 91쪽.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영외마트에서는 일반 시민사회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002개 품목(2012년 3월 기준)에 대하여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꽃 배달 서비스, 장기렌트카, 이사화물 서비스,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여 군인가족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직영시설이 서귀포호텔 등 6개소의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계룡 스파텔 등 3개소, 민영콘도는 17개 업체 62개소를 회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sup>42)</sup>

오늘날의 군인가족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들과 사고를 위한 친교 자리에 어색함이 없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서도 군이라는 직장에서의 지나친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재량권을 보장함으로써 가정생활 양식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오지와 고립으로 대별되던 군인 가족들의 생활양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시민 사회와 더욱 가깝게 밀착됨으로써 상호보완적이고 보편적인 통합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8. 결 론

지금까지 한국군의 발전과정별 군인가족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를 시대 구분에 따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제도와 주거, 자녀교육 및 복지여건에 대한 사료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2) 직영시설은 서귀포호텔이 있고, 콘도는 화진포, 청간정, 대전1·2, 송정 등으로 263실의 객실이 있다. 민영콘도는 오너십 2,325구좌, 멤버십 311구좌로 총 2,696구좌 약 260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체인은 전국에 62개소가 있다. 국군복지단, 위의 책, 23쪽.

한국군의 발전과정에 나타난 처우개선에 대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군 특수성에 고착되어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에서 한국의 사회·경제·문화가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면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면서 조직적이고 합법적이며 보편적인 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체사회의 틀 속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거 측면에서는 군 자체 자산에 의존한 주거 운용, 격오지 단위로 산재한 주거 환경, 보유율의 저하 등 독자형 주거형태가 형성되었지만 군의 주거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단위 통합형 주거단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 등이 형성되면서 주거 환경과 여건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셋째, 자녀교육 측면에서는 군 특수성에 의존하여 격오지 내부에서의 교통 및 교사 지원 등 천편일률적인 교육 지원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사회 및 경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군 내부에서 탈피하여 도심지 공동 기숙사 운용, 다양한 장학제도 운용 등 개방된 사회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 환경 측면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복지시설이 개방되고, 시민사회의 시설도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와 군인가족에 중점을 두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군의 군인 가족들에 처우개선에 대한 분석은 모체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하위 조직인 한국군도 시·공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방향에 중점을 두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제 군인의 존재와 역할만을 인식하는 시대적인 통념은 배제되어야 하며, 군인의 중요성만 부각되어 군인 가족들이 분리되면 군의 무형전투력 창출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은 원초적인 통합체이며 이러한 통합체는 일반시민 및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상호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올바른 사료의 연구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2. 11. 15 심사수정일 : 2013. 2. 19, 게재확정일 : 2013. 2. 25)

주제어 : 군인, 군인가족, 군인아내, 군인자녀, 가족복지, 군인복지, 가족사, 군인주택, 여가

<ABSTRACT>

##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and Military Family History

Hong, Chang-gug

Professional Soldiers' wives require abilities in variety of areas where their husbands are not available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ir job requirements. Living in an isolated environment, worse living conditions, frequent moving, poor housing, lack of support in child education and care, and limited medical service and lack of leisure facilities, with their husbands serving 24 hours as commanders, administrators, and instructors, they have to be experts in maintaining households.

The improv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today owes much to the military families. Few people seem to recognize the sacrifices and sufferings of the military families, who contributed greatly to intangible combat power and to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in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rong army through six decades.

However, it is undeniable truth that while there are researches on the Korean army, there are not much researches on the military families. Just like women's study, the researches on military families have been neglected.

Finding the data and source materials on the Republic of Korea Army's military families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future researches help making the political decisions on the military. Therefore this study on the Republic of Korea Army's advancement in history will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s: establishment of the ROK(1945~1949)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Position(1991~present). Through these timeline, data and sources on military families will be analyzed to find changes in them.

Through this research, hopefully, correct understanding of military

families will be possible an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studies on the military.

Key Words : Professional Soldiers, Military Family, Professional Soldiers' Wives, Professional Soldiers' Children, Family Welfare, Military Welfare, History of Family, History of Military Families, Military housing, Leisure facilities